**공용 이력서**

1. **성장과정**

**[아픔을 잊게 해준 코딩]**

저는 작년 초, 코로나에 걸려 쉬는 동안 하루 종일 코딩을 할 수 있어 아프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저는 가장 먼저 “아 드디어 코딩 강의를 오래 들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기뻤고 실제로 밤새 노트북으로 코딩 영상을 보며 무작정 따라하며 매우 흡족한 격리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자 계속 코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시간이 생길 때마다 다시 영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딩은 잠시 손에서 놓으면 다시 감을 잡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느낀 순간 저는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 받는 직업이 아닐까? 그럼 많이 하자! ]**

저는 전 직장을 그만 두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평가받고 돈을 벌자.” 저에게 개발자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전공한 저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도태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환경에 머무르고 싶었고 분명한 보상이 따른 다는 점에 오래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원만한 대인관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저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는 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항상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의견에 오히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생각에서 시작해 오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장점을 통해 부트캠프 진행 중에 스터디 원을 직접 모집해 스터디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부트캠프 일정이 빡빡해서 항상 스터디가 지속되기 어려웠지만 저는 직접 스터디 원을 구하는 공지사항을 올려 10명의 동료분들과 스터디를 2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게 30분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스터디를 진행할 수록 서로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며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껴 팀원들과 조금 더 길게 스터디를 진행하며 서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서로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과정이 저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트캠프가 끝날 때 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스터디를 진행하며 서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어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눈치를 많이 살핀다는 점입니다. 이 전 직업의 특성상 민감하게 상대방의 변화를 캐치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덕분에 저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게 되어 좋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학교 생활 또는 경력**

[개발 경험]

**카페 재고 관리 시스템**

: 자바 코드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현. 조건별로 제품을 새로 추가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기능을 구현. 부트캠프 시작 전에 배웠던 MYSQL의 쿼리 내용이 떠오르며 SQL문 작성에 흥미를 느낌

**스터디 자료 공유 사이트 (자바 웹)**

: 자바와 JSP를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처음으로 구성. 처음으로 웹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JSP를 활용하여 화면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입력하는 개발을 경험.

**쇼핑몰 고도화 작업**

: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MVC 패턴으로 바꿨던 이전 프로젝트를 고도화 하는 작업 진행. 미구현 상태였던 주문 목록 띄우기, 주문목록 합계 산출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등의 기능을 하며 조금 더 복잡한 SQL문을 경험함.

**스터디 매칭 웹페이지 구현(최종 프로젝트)**

: SpringBoot, JPA 학습 후 연관관계를 다양하게 활용해보고자 스터디 매칭 프로젝트를 진행.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CRUD뿐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연관관계와 로직을 경험. 또한 RESTful 하게 구성하기 위해 팀원들과 따로 React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자격증]

비전공자로서 전공자들에 비해 이론 지식이 부족할 것이고 가장 큰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트캠프 시작 전에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부트캠프 진행 중에 실기 공부를 했고 또 SQLD 자격증 원서 접수일을 공유하며 함께 시험을 준비해 합격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부트캠프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론적인 지식을 채우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정보처리기사 필기 합격
* SQLD 자격증 합격

1. **입사지원 동기와 장래 포부**

경력직을 뽑는 공고지만 제가 부트캠프를 통해 사용해봤던 기술이 지원 공고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이 생겨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목표가 있어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지원 공고에 나와있는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가장 제가 꿈꾸는 개발자로서 직장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트캠프에서 가장 많이 배움을 얻고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수업 시간이 끝나고 6시 이후에 스터디 원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했던 시간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해시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알서포트’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제가 좋아하고 저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려 끊임 없이 성장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능력을 개발시키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